

# 2020년 국악방송 제1차 시청자위원회(서면) 결과

---

작성일자: '20.05.21.(목) 심의감사부

## □ 개요

- 목 적 : 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시청자의 권익 보호
- 개최방법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고려 서면(전화 및 이메일) 진행
- 대 상 자 : 주철환(위원장), 김희선(부위원장) 등 제3기 시청자위원 10명
- 주요 내용
  - 2020년 라디오 봄 개편 및 자체제작 TV 프로그램 운영상황 보고
  - 프로그램 개편 및 운영과 관련한 의견 수렴
  - 방송편성 및 제작 관련 등 기타 의견 수렴

## □ 결과

- 주요 안건 서면 보고
  - 2020년 라디오 봄 개편 편성표 및 라디오 운영상황 보고
  - TV 편성표 및 자체제작 TV 프로그램 운영상황 보고
- 시청자위원 의견 서면 수렴
  - 기 간 : '20.04.27.(월)~'20.05.18.(월) 3주 간
  - 방 식 : 이메일을 통한 의견 제출
  - 제출위원 : 제3기 시청자위원 총 10명 전원

## □ 제3기 시청자위원회 명단

분야	직능	성명	주요약력	성별	비고
방송정책	방송, 미디어정책	금희조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미디어 문화융합대학원장	여	
방송콘텐츠	국악이론	김희선 (부위원장)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	여	
	국악실기	천재현	정가악회 대표	남	
	문화재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 연구소장	남	
	대중문화	주철환 (위원장)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남	
콘텐츠 유통	마케팅 전략	이재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기획팀장	남	
교육	전통예술교육	곽은아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여	
법조	변호사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저작권 전문)	남	
예술인	예술인 복지	김지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장	여	
시민단체	시민단체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남	

\* '18년 국악FM방송 재허가시 허가기관(방송통신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 방송분야 전문가,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 확보하여 구성

##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 세부내용

위원명	제시 의견
주철환 (위원장)	<p>국악방송TV, 라디오 모두 콘텐츠가 훌륭함에도 시청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움.</p> <p>화제가 없으면 존재도 없는 것이 미디어의 속성이므로 어떻게든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p> <p>지금은 유튜브가 대세인 상황이므로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전략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함. 요즘 화제인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인물들을 초대하여 &lt;우리 소리 배워보기&gt; 등을 녹화한 후 그 일부(재미있는 부분 발췌)를 유튜브에 게시하여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 등이 있겠음.</p> <p>특히 '미스터 트롯' 톱7에 입상하진 못했지만 2010년 제36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원 출신인 강태관을 국악방송TV 프로그램에 전격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아이디어임.</p> <p>지금은 '홀로 고고히'보다는 '함께 더불어'가 시대정신이므로 타 분야의 화제 인물들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음.</p> <p>국악전문 채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좋겠으나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물결을 과감하게 흡수하는 것이 방송의 생존 전략이 되도록 해야 하겠음.</p>
김희선 (부위원장)	<p>국악방송 라디오는 20년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정돈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일정부분 청취자 층을 확보하면서 브랜딩에 성공한 프로그램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금번 개편도 큰 틀에서는 국악방송의 브랜드 포맷 안에서 소규모의 개편을 진행한 듯함.</p> <p>아침을 상쾌하게 맞아주는 &lt;창호에 드린 햇살&gt; 진행자 박경소는 초기 다소 실수가 있기도 했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목소리도 안정적이면서 따뜻하고 상큼한 이미지를 전해주어 아침프로그램 진행자로 적절하고 간판 프로그램에 연주자를 세운 점은 국악방송이 젊어지고 현장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 참신함. 같은 관점에서 &lt;노래가 좋다&gt;의 황민왕은 적절한 재치의 입담과 음악에 대한 이해와 내공이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음. 경상도 사투리가 어색할까 걱정도 되었는데 오히려 '전라도' 음악이라는 국악의 선입견을 깨는 장치로도 재미가 있고 무엇보다 진행자의 진행숨씨가 돋보여서 사투리는 친근함을 더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음.</p> <p>&lt;음악의 교차로&gt;에 요일별로 다른 장르와 다른 진행자를 대거 등장시킨 방식도 참신함.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청취자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음. 원일의 &lt;여시아문&gt;은 다양한 분야의 가장 핫한 이 시대 예술가들이 게스트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프로그램이고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에는 누가 나올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프로그램임.</p> <p>&lt;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gt;이 예전에 비해 시간이 줄어든 것(지난 개편)은 아쉬웠는데, 금번 개편에도 편성 시간은 동일하여 아쉬움으로 남음. &lt;세계의 전통음악&gt;으로 따로 분리해 주말방송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lt;세계음악여행&gt;안에서 전문가 코너 같은 걸 만들어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세계의 전통음악과 세계음악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세계의 전통음악을 분리시켜 '학술'의 영역에만 둔 것 같이 느껴짐. 오히려 월드뮤직 안에서 세계의 전통음악을 배치하는 편이 청취자 확보 면에서도 유리할 것 같음.</p> <p>전문사회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다소 생경한 질문이나 멘트를 하다 보니 청취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음. &lt;맛있는 라디오&gt;의 진행자는 명랑한 분위기가 프로그램의 컨셉으로 이해는 되지만 때로 반말 투를 사용한다거나, 음-어-에-(예라는 발음을 에-로 한다든지) 등을 빈번히 사용하여 때로 불편할 때가 있음. 이를 개선하면 생방</p>

	<p>송의 장점을 살린 순발력 있는 진행으로 칭찬할 만함.</p> <p>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학술-교양의 색이 짙은 프로그램들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짐. 모든 프로그램이 재미있을 필요는 없으나 국악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국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일수록 '학술적'이기만 하기보다 재미 요소를 더해 어려운 것을 쉽게, 쉽지만 진지하고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함.</p> <p>TV 프로그램은 국악방송의 현재의 예산 상황이나 방송 초기라는 점에서 많은 과제를 갖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됨. 여전히 교양-감상-정보가 주요 목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으로 보이나 점차 예산 규모에 맞추어 프로그램의 내용도 보완되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야심찬 프로그램이 편성될 것이라 기대 하겠음. 현재의 프로그램 운영은 현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후에 교양을 넘어 재미를 담은 다양한 포맷의 개발도 필요할 것 같음. 올해 이후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국악TV를 볼 수 있게 된다니 이 또한 기대되는 부분임.</p>
<p>곽은아</p>	<p>본사 라디오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국악 및 국악 이외의 음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알차다고 생각됨. 앞으로도 양질의 진행과 구성이 이어지기를 기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M국악당 : 공연실황뿐 아니라 관계자 인터뷰로 청취자 입장에서 듣기 어려운 내용들을 풍부하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음.</li> <li>- 예술가의 Back Stage : 진행을 맡는 예술가에 따라 프로그램 다양성이 확대되어 긍정적임. 다만 진행자에 따른 기복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겠음.</li> <li>- 음악의 교차로 : 프로그램 제목에 맞게 국악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하는 것이 신선함. 국악방송을 색다르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접합되는 음악의 정보가 상세히 소개되면 더 의미 있겠음.</li> <li>- 연구의 현장 : 논문이나 연구를 앞둔 전공자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임.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음.</li> <li>- 음악의 숲을 : 이금희 진행자의 목소리 및 시간대가 잘 어울림. 진행자의 코멘트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청취자들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수 있기를 기대함.</li> <li>- 여시아문 : 국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고 VOD로 전하는 것이 특징적임. 원일 진행자의 독특한 분석과 진행이 기대됨.</li> <li>- 세계음악여행 : 음악과 역사, 문화를 융합하여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임. 국악을 넘어서 세계음악을 접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이 되겠음.</li> <li>- 세계의 전통음악 : 타이틀과 달리 아시아음악 위주로 되어있는 것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음. 오리엔탈리즘이 유럽의 음악에 영향을 준 바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연계성 있는 음악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li> <li>- 문화소식입니다 : 각종 문화소식을 짧게 전달하는 방식이 긍정적임. 현재 공연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각 지역 방송국에 편성된 'FM국악당'과 같은 국악방송에서 진행하는 공연실황중계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좋겠음.</li> </ul> <p>광주 방송은 일반 청취자가 듣기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음. 다만 공연정보 소개 및 남도지역 관련 소개 등에서 각 프로에 중복되는 내용이 더러 있으므로 차별성 있는 구성을 고려하면 좋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도마실 :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일반인들도 국악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임. 특히 지역 국악인을 초대하는 내용이 유익해 보이고, 일반인 국악 애호가를 만나는 코너는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리 음악을 즐길 수 있음을 유도할 수 있어 장점이라고 생각함.</li> <li>- 음악이 흐르는 마루 : 국악수첩 코너는 청취자에게 매우 유용한 국악 지식을 전해줄</li> </ul>

	<p>수 있을 것 같음. '음악이 필요한 순간'은 흥미로운 코너인데 적절한 음악선정을 위해 즉흥적 응대가 필요한 문자메시지보다 게시판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돌길 산책 : 남도지역의 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프로임. 간단한 퀴즈를 통해 청취자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청취율 제고에 도움이 되겠음.</li> <li>- 흐르는 음악처럼 : 앞 프로의 흐름을 고려한 창작-전통음악의 편성은 좋아 보임. 해당 곡 정보를 선곡표에 상세히 기재해 주면 좋겠음.</li> <li>- FM국악당 : 코로나19로 공연 활동이 마비된 시기에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임. 연주자들이나 청취자 양쪽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함.</li> <li>- 온고을 상사디야 : 소개하는 각 공연이나 행사의 특색, 공연 내용 관련 부분을 보다 상세히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음.</li> </ul> <p>대전 방송은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어 큰 장점인 것 같음. 각 프로그램에서 전달하는 정보가 중복되지 않아야 할 듯 하고, 누구나 충분히 재사회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도하면 좋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솔바람 물소리 :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취향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매우 뜻 깊음. 음악뿐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노년층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나가길 바람.</li> <li>- 꿈꾸는 청춘 : 일자리 정보 등 노년층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강점임.</li> <li>- 충청풍류 다이어리 : 국악 퀴즈를 운영하는 것이 긍정적임. 점심 시간대인 만큼 보다 역동적인 느낌을 가지면 좋겠음.</li> <li>- 오후의 음악정원 : 국악 마니아층의 관심을 이끈다는 취지에 맞게 청취자들과의 교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음. 주요 구성 내용만을 보아서는 타겟 청취자에 맞춘 것이 와 닿지 않는 감이 있어 조심스레 제안함.</li> <li>- FM국악당 :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시점에서, 공연 소개보다는 초대석을 통한 공연 실황을 전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봄.</li> </ul>
<p>금희조</p>	<p>프로그램 기획과 편성 측면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국악방송의 프로그램들을 시청자들이 일단 보게 되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직 국악방송을 시청취해 보지 못한 시청자들을 유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국악방송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보다 활발한 홍보 활동이 수반되면 좋겠음.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SNS를 이용한 대중과의 소통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함.</p>
<p>김지영</p>	<p>특집프로그램 구술프로젝트는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임. 꾸준히 구술채록을 남겨 주길 부탁함. 매월 선정된 분들의 공연 내용도 추가적으로 기록되면 좋겠음.(완창곡, 연주곡 등)</p> <p>TV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lt;명상요가&gt; 프로그램은 국악과 요가의 만남을 통해 예술의 치유 효과를 동시에 경험하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함. 밤늦은 시간대 중심으로 방송 횟수를 1-2회 늘여도 좋을 것 같음.</p> <p>국악과 전통예술에 대한 유아동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좋겠음.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무대를 만들어 주면 좋겠음.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이 어우러진 퓨전 프로그램을 기대함. 국악방송 개국 공연에서 젊은 음악인들 공연에 대해 (다른 공</p>

	<p>연 때보다) 많은 분들이 박수치며 즐거워하시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음악의 교차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각적으로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음.</p> <p>대담 프로그램의 경우, 적절히 자막을 활용해 주었으면 함. 자막 글꼴체도 화면 전반의 디자인을 고려해서 선택해 주면 좋겠음. 좌우측 상단에 프로그램명, 국악방송로고, 하단의 자막 글씨체 등 통일성이 떨어져서 매우 산만한 느낌을 줌.</p> <p>국악과 음악이 아니더라도 한국문화와 전통예술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더 풍부히 기획되면 좋겠음.</p> <p>국악방송 앱은 다소 불안정하게 느껴짐. 시청(또는 청취) 중 앱이 튕기는 현상(단함)이 잦아서 불편함이 있음. 비정상 종료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점검이 필요함.</p> <p>국악방송이 전통예술과 예술인들을 널리 알리고, 이들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에 감사함을 전함.</p>
김현	<p>트롯과 국악. 한국의 대중가요 트롯의 형성에 영향을 준 전통국악.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는 한국의 대중가요 등을 담아낼 수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안함.</p> <p>TV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악계의 일상적인 활동과 관심사를 다루는 범위에 국한되고 있는 느낌이 듬.</p> <p>이미 익숙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듯한 프레임워크에서 벗어나, 좀 더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전에 다루지 못했던 주제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안이하게 출연자에게만 의존하기보다는 (이 경우 출연자의 관심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시청자에게 강요) 방송국에서 주체적으로 조사·연구의 과정을 거쳐 시청자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p> <p>"국악"이라는 주제에 너무 협소하게 매달리기보다는 "국악"이 향유될 수 있는 "문화환경" 전체로 관심 범위를 넓혀 갈 필요가 있겠음.</p>
박선영	<p>라디오 프로그램 &lt;문화시대 김경란입니다&gt;와 관련하여 새로 신설된 코너인 김경란의 소설 읽기, 한 줄 책 읽기는 좋은 시도로 보임. 재미와 정보전달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고전 인문서나 고전 소설도 좋지만, 책 선정과정과 관련하여 청취자들의 제안으로 선정하는 코너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음</p> <p>국악TV 프로그램 중에 임팩트 있는 내용이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편집(10분 내외)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유튜브는 청소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뉴미디어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대중적으로 인지도 있는 인물에 대한 콘텐츠나 국악계 소식(예를 들면 주간문화소식), 명상요가 등이 유튜브로 활용하기 좋은 사례로 보임. 유튜브의 특성상 개인 계정 유튜브에 추천 영상으로 오르는 것은 매우 큰 홍보 효과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악방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인 콘텐츠가 필요함. 필요시 대중들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위한 기획 영상 제작도 필요함. 관련 유튜버들과 협업하거나 국악 관련 유튜버를 육성 지원하는 것도 좋은 홍보전략으로 보임.</p> <p>&lt;소리를 배우시다&gt; 프로그램은 새로운 교육법 개발과 예능적 요소 강화가 필요함. 시청자들에게 노래, 춤, 장단 등을 가르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환영하고, 더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특히 출연자에 연예인과 대중음악 전공생,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것은 흥미로웠음. 다만 교육 방식이 전통적인 국악 교습법을 그대로 방송에 옮겨 담는 방식은 아쉬운 점. 국악 전문인과 일반인 교육의 교습법은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어야 함. 일반 대중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 음악, 미술, 영화, 연극과 같이 다른 장르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경우에도 새로운 교육</p>

	<p>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험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강사도 꼭 연륜 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보다는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음.</p> <p>일반적인 예능프로그램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업보다는 오락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예능적 요소들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을 것 같음. 끼 있는 출연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능적 요소를 늘리고, 그 과정에서 다소 교육 효과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함.</p> <p>&lt;명상요가&gt;는 힐링과 치유가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보임. 특히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유튜브 콘텐츠로 활용하기 매우 좋음. 운동/스트레칭/몸풀기 등이 유튜브의 인기 콘텐츠임. 국악을 억지로 요가와 접목 시키려는 시도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굳이 배경음악이 국악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컨셉을 계속 유지했으면 함.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다가 '어! 그런데 배경음악이 좋네. 무슨 음악이지?' 라는 생각이 들도록 자연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음.</p>
<p>윤용근</p>	<p>라디오 봄 개편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방송편성과 제작 노력이 돋보임.</p> <p>특히 대전과 광주 등에서 제작하여 전국에 송출하는 방식은 본사 중심 방송국에서 지방의 풍성한 국악 소재를 전국에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 좋다는 의견임.</p> <p>다만, 방송 전체 내용 중 우리 악기를 배우는 시간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p> <p>가을 편성 때는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 또는 우리 전통 악기를 소개하고 제작하는 과정이나 역사에 담긴 의미를 찾아서 전달해 주는 방송이 편성되면 더욱 좋겠음.</p> <p>국악방송이 TV 개국 이후 더 풍요롭고 발전하는 것 같음. 특별히 인생낭독:人 프로그램과 소리를 배웁시다 프로그램은 감동과 경험을 전해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공연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좋은 공연 실황을 국악방송에서 전달해 준다면 국악계와 국민들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음. 천연하여, 기존에 확보한 영상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여 국악TV가 국악의 역사를 재현 발전시키는 역할까지도 담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임.</p> <p>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제작하고, 편성하여 방송을 운영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악방송 임직원께 감사의 말을 전함.</p>
<p>이재일</p>	<p>&lt;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 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편성 :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편성 패턴의 일관성이 필요함. 시청자가 자주 찾아보고 선호하는 내용(본방/재방/횟수) 편성시간 등 일목요연 정리된 편성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방송 프라임 타임(19시~22시) 시간대 편성 비중에서 불거리가 있는 공연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음. 향후 편성 관련하여 장르별 데이터(시청률/조회수)를 활용하여 검토가 필요함.</li> <li>- TV 프로그램 : 공연 영상 프로그램이 실황 중계녹화 영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고 품질의 연주와 편집과 자막에서 좀 더 완성적이고 퀄리티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음. 국악방송의 대표브랜드와 같은 킬러콘텐츠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함. EBS의 펑수 등 캐릭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처럼 타킷 시청자의 대중적이고 공감적 요소를 담은 기획 프로그램을 제안함. 주시청자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다소 진지하고 교양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음. 향후 젊은 시청자도 편하게 볼 수 있고 재미를 추구하는 프로그램 등 젊고 신선한 요소의 프로그램 콘텐츠 발굴이 필요함.</li> <li>- TV 송출 및 노출 : 지난해 개국한 KT IPTV채널외 다시청 채널인 SK브로드밴드 등 타 통신사 또는 OTT(Over The Top Service) 채널의 확대가 필요함.(티빙/웨이브/넷플릭스</li> </ul>

등) 젊은층은 물론 전 세대에게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방송송출 기법을 활용하여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에서도 특집방송 형태로 실시간 송출도 더 많이 되도록 검토가 필요함.(MBC 등 지역방송의 지역축제 콘서트 실시간 송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는 SB(Station Break) 시간대에 시청자가 다른 채널로 돌아서지 않도록 잘 만들어진 자체 프로그램 홍보 스팟(채널 및 프로그램 광고마케팅)을 송출하여 프로그램의 충성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됨.

<홍보 마케팅 관련 의견>

- 자체 홍보채널 : 국악방송은 자체 홍보채널(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을 통해서 TV/라디오 방송을 홍보하고 있으나 조회수가 아주 높지는 않음. 블로그 홍보 채널은 작년 11월 12일 소식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게시물이 없고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블로그 채널을 잘 운영하면 네이버 메인화면(공연전시판)에 관련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잘 노출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함. 페이스북 홍보 채널은 게시물도 수시로 올리고 노출도와 참여도(따봉/댓글/공유)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다만 채널 구독자와 방문자에게 더욱 어필하는 광고마케팅(이벤트/퀴즈/경품)을 주기적으로 활용하면 채널지수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됨. 젊은층이 즐겨 찾는 인스타그램 홍보 채널은 비교적 짧은 시기에 구독자와 참여도가 높은 편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젊은 시청자/청취자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국악방송을 찾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규 고객(시청자/청취자) 확보 및 안정적인 방송 이미지 관리가 더욱 필요함. 동영상 홍보 채널은 현재 개설하여 운영 중인 자체 유튜브 채널과 병행하여 네이버TV(네이버 플랫폼) 개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악방송 고객들이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바로 손쉽게 연동하는 네이버TV 채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 활용하면 좋음. 결론적으로 현 고객(국악방송 시청자/청취자)과 잠재 고객에게 맞는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자체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타겟층에 맞는 홍보 콘텐츠 생산 확대 및 홍보채널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악 관련 전문 채널로 인지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제안 : 온라인 기사단 등 운영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홍보모색(EBS교육방송 대학생 기사단 활용),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 노출 강화 및 네이버 연계 홍보로 메인 노출 기회 확대를 통해 충성 관객을 비롯해 대중들에게 국악방송 인지도 제고

천재현

라디오의 경우 크게 개편이 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관점에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됨. 많은 전통음악은 긴 호흡으로 감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함. 그러나 '방송'은 이러한 전통음악의 특징을 담기에 적당한 구조가 아닐 것도 같음. 4분, 5분이 적당한 시간으로 사료됨. 심야 시간대여도 좋을 것 같은데, 진중하게 긴 호흡으로 전통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봄. 음악만 듣고 싶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음악을 듣는 이유와 방법, 음악의 내용과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음.

TV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악무대 컬렉션에 관심이 많이 감. 국악TV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한 국악공연을 보여주는 채널임. 잘 정리된 공연을 TV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될 것 같음.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되는 공연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음. 그것이 아마도 국악한마당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음.  
국립국악원과의 전통프로그램 협업을 통하여서도 좋은 콘텐츠를 이끌어 낼 수 있겠음.

위에 말씀드린 다양한 공연을 방송에서 만나는 것은 좋으나 우려가 되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은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임. 실연자들에게 저작권 등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뤄져야 하겠음. 현재 라이브 생중계 등과 관련하여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음. 국악방송이 예술인의 권리를 잘 보장해주며 성장하는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음.

재방송 등과 관련한 저작권료의 지급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악방송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겠음. 국악방송이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삶을 함께 가꾸어 간다면 좋은 신뢰 관계로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음.